



마지막회 주님께서 옛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다

구세주의 보광을 보고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구세주의 고난을 실감하며
기존 종교세력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핍박으로 나는 허탈감과 설움을 느꼈다

주님 옥고생활 중 두 번의 면회 기회가 있었다

주님은 2000년 출옥하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펼치시다가 2003년 8월 재구속 되시고 2004년 6월 19일 보광하셨다. 주님 구속에 대한 언론의 음해보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 혼자 생활하게 되었기에 역곡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역곡에서 생활하면 신양도 일취월장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살고 있던 집이 남동생에게 상속이 되었고 남동생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 집을 관리해 주며 계속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주님이 안양에서 옥고 생활하시는 중에 2번의 면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번은 7년간 옥고 생활하시는 중이었고 한번은 주님 보광하시기 일주일 전에 언론출판 식구들과 함께한 면회였다. 첫 번째 면회를 다녀온 후 많이 후회를 했다. 주님을 버려 지방식구 등등 여러 명이 함께 면회 장소에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주님께 이것 저것 많이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난 주님이 고혹스러운 상황에 계신데 무슨 부탁을 저리 많이 할까하고 난 뉘엿이 선 채 주님만 보고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구세주는 어느 상황에 처해도 구세주이므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옳다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면회 때는 내 상황이 다급하기도 했지만 첫 번째와 달리 주님께 현재 내 상황과 이것 저것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주님이 농담도 하시고 '그래 내가 밀어줄게 잘 해봐' 라고 말씀해주셨다. 지금 돌이켜보면 일주일 전에 그런 면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 없이 드릴 수 없다.

풍운조화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주님의 권능은 어떤 힘도 대항이 불가능하다

주님이 불잡이주시니 늦게나마 영생이 가능하겠다 란 마음도 생기고 아무리

기존 종교세력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여도 자연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세주의 구원의 역사는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백두산에 마그마가 산정상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란 뉴스와 후지산이 터질 위험에 처해 있다란 뉴스를 보면서 주님의 풍운조화의 권능은 인류를 구할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백두산이 터지면 유럽까지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후지산까지 터지면 지구는 정말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 속의 불덩어리, 마그마가 하나님이라고 주님말씀을 들어왔다. 그 불바다가 영생의 수행을 실천한 승리제단의 식구들에게는 시원한 빛으로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세상으로 변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 옥고생활 하시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가슴으로 많이 울었다. 어느 권사님은 주님이 찬 방에서 지내시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가라고 추운 겨울에도 방에서 지내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은 주님의 권능을 보아왔고 영생에 대한 확신의 씨앗이 터져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저 자신들의 잣대로 주님을 매도하고 죄를 씌워 보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아침에 집에서 제단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후지다 책임승사로부터 주님의 보광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지나자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다. 나는 주님께 '어머니를 사죄회생(死者回生)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주님이 보광하시니 더욱 낙담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공리를 며칠을 생각하고 생각했다. 지금의 성인이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내용은 전해져 내려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나도 주님의 영생의 진리를 전하며 살자라고 결정을 내렸다.

주님이 보광하시자 여기저기서 주님



윤금옥 승사가 제단 출입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실지 나타나서 함께하셨던 간증들이 여러 개 울라왔다. 보광 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과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간증이다. 그럼 주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주님의 존재에 대해 이리저리 공리를 해보니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란 생각이 들었다.

완성자 구세주는 죄가 쌓일 수 없어 사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칼세이건 교수는 의식의 차원이 틀리면 낮은 의식의 차원의 사람은 높은 의식의 차원의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높은 차원 빛으로 계시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주님을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입장에서 파장으로, 즉 육체에서 빛으로 우리를 앞에서 여러 번 변신하셨다. 그러므로 빛에서 육신으로 다시 변신이 가능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엇을 행하든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죄를 정하면 죄가 되고 내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을 받은 분이다. 따라서 주님은 죄가 쌓이지 않는 분이다. 성경에 죄가 쌓여 죽음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는가? 죄가 없으니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뻐뵙산을 회복시킨 분이라고 말씀을 받은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뻐뵙산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받은 분이 어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예뻐뵙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닌가?

우리 성도 중에 옛날 점을 보여주던 분이 계셨다. 그분은 점괘들이 맞추는 예언은 70% 정확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99%가 정확하다고 하었다.

게다가, 시종간야 소사립(始終良野 勢磻)이란 예언의 말씀처럼 시작과 끝맺음을 소사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책임유류는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구세주의 증표이며 불로초, 불사약인 이슬이 내리고 있고 이 영생의 역사 중에 주님이 잠시 떠나셔서 하실 일이 있으니 섭섭하게 생각되시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 역곡으로 이사를 오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다

주님이 2004년 보광하시고 꿈에 그려왔던 역곡으로 이사하는 것이 2005년도에 이루어졌다. 돌이켜보면 역곡으로 이사를 하니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다. 멀리 산다는 핑계로 약속 시간에 잘 맞추지 못했던 습관이 사라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서툴어 전도하려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은 재미있게 전도에 임하고 있다.

주님은 한 사람 전도되어 오면 일주일을 흡을 출 정도로 좋아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지구 덩어리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구세주로 키우고 있으시니 우리들은 그 보답으로 전도에 힘써야 할 것은 그 누구나 알고 있다. 전도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하면 나의 의식도 그만큼 넓어지고 신앙도 강해지는 것 같다.

세계정세나 경제, 자연환경들이 환란 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주님의 강론에도 3년 흉년이 든 후 지구상에 식량이 다 떨어지면 승리제단 성도들에게 이슬을 양식으로 주신다고 하니 환란기에 이슬을 먹고 승리제단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힘을 잃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가 위험한 경제상태에 있다. 기축통화의 불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 환경은 백두산과 후지산이 폭발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만약 두 산이 폭발하면 지구 전체가 그 피해 상황으로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지축이 바로 서려고 급격한 극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미국 독일 노르웨이의 과학단

체와 외국 예언가의 말이다.

미국의 NOAA의 국립지리물리학 연구센터와 독일과 노르웨이의 과학자 연구 그룹이 지구의 지축이 과거 10년간 급격한 움직임이 있어 지각변동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지금부터 발생하리라 밝히고 있다.

지축이 바로 섭으로써 한국이 세계의 신도(神都)로 정신문명의 수도이자 세계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탄허스님의 지축정립과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며 지축이 바로 선다는 김일부 선생의 정역설의 예언이 있다.

또 유럽의 모단체 수행자 대표인 사만 키사는 어려서부터 동물과 대화 가능했고 눈으로 에너지 볼 수 있는 예언가이다.

사만 키사는 2012년 지구 종말로 특히 유럽에서 시끄러웠던 시기에 세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2012년 마야달력의 끝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의식 수준이 상승하여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지축의 극이동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가 완전히 극이동이 이루어져 지축이 완전히 설 때 살아남으려면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의식과 몸이 완전히 달라진 신인류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 때 이 시대에 태어나 승리제단 성도로서 영생의 길을 걸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천국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나 마 열성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이다.*

윤금옥 승사 / 본부제단

젊은이에게 드리는 제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인간 불행의 근원인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을 제거하고, 양심과 신성을 회복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유한한 존재라는 탈을 벗어날 수 있는 참진리를 터득하여 죽지 않는 불사의 자격을 갖추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 급격한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혼란과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운명에 고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참다운 삶의 목표와 포부 설정이 우선

인간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생명의 실상을 깨달아서 인간이 왜 사는지 그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못 생명체와 사회와 인류가 떠안고 있는 온갖 모순과 갈등, 마찰과 분쟁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향(理想郷)의 세계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은 돈과 명예, 향락 따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드높고, 순간의 향락에 젖어 있더라도

일단 사람이 늙고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다 결국 죽는다면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순간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 불행의 근원인 늙고 병들어 죽는 유한한 신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진리를 터득하여 먼저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다운 삶의 목표와 동기가 그 어떠한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위치에 서서 타인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안녕과 평화, 불멸의 세계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지구촌 사회는 온갖 고통과 불행과 죽음으로 얼룩져

인간은 결단코 자신만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합니다.

요즘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가뭄, 지진, 홍수, 폭풍, 화오리바람과 같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먹고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과 극도의 이기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상실로 빚어진 인재(人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전 지구적 생명체는 절멸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불 보듯 훤히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 안에 내재된 불행의 씨앗인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성과 감정, 부정과 긍정 등 이중성의 구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는 시작이 행복한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 이겨 항상 양심, 선, 이성, 긍정,

생명성이 온전히 한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각자의 마음속에 그 어떤 외압적인 요인과 물질적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지고지순한 정신적 평화와 열락(悅樂)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참 지성을 소유한 젊은 세대만이 품을 수 있는 생의 유일한 목표와 포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인생의 첫 단추를 꿴 것과 같아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 지구촌의 온갖 문제와 불행의 요인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이내 정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 그대로 답습해서는 인류의 미래는 암울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한 향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의 삶은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기차와 같은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소통할 줄 아는 젊은 세대는 삶의 목표를 먼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행의 씨앗인 자존심과 욕심, 자기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참다운 인간성이 되는 양심(良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義人)과 선인(善人)이 넘쳐날 때, 이 세상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갈등과 불만이 해소되어 괴롭고 고통, 눈물과 탄식, 죽음과 전쟁이 없는 참 평화의 세계가 건설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라는 천국과 유토피아는 외계의 다른 존재, 보이지 않는 신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삶의 목표와 의미를 깨달은 지성인과 도덕군자가 많이 생겨서 신천신지(新天新地)를 건설하는 천지공사(天地工事)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때에 그 좋은 시절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젊은이여! 인간 존재의 대의(大義)를 깨닫고 불붙은 열정과 투혼을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불멸의 세상 건설을 위해 동참하십시오. 인생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